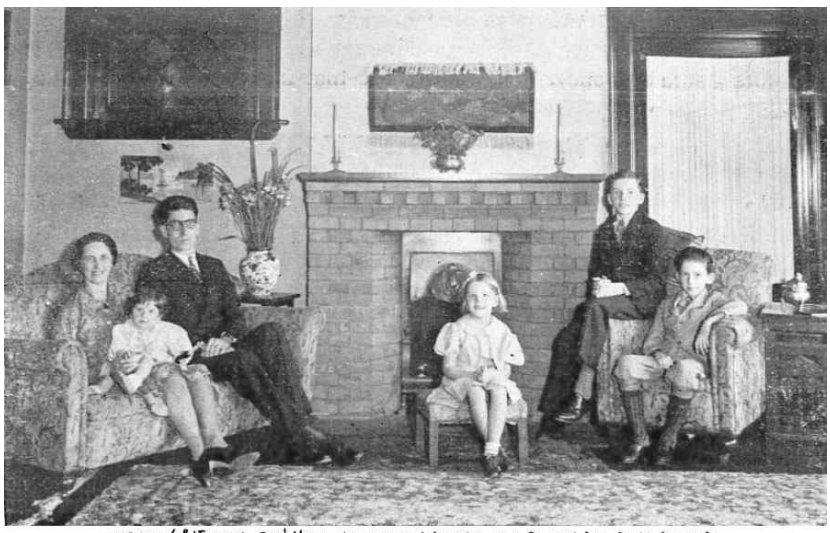
4. 존 채이스(John T. Chase)의 한국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존 채이스의 한국선교에 대한 관심(1927-36)

존 T. 채이스(John T. Chase)는 1905년 9월 17일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출생하였고, 만 6세 때부터 LA에 거주하는 이모(Mr. and Mrs. A. D. Shipp)의 집에서 성장하였다. 테네시 주 녹스빌(Knoxville)에 소재한 현재의 존슨대학교(Johnson University)에서 수학하던 중 켄터키 주 루이빌에 소재한 맥가비성서학교(McGarvey Bible Institute)로 옮겼으며, 이 학교가 1924년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소재한 신시내티성서학교(Cincinnati Bible Institute)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신시내티기독대학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와 성서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을 1926년에 졸업하였다. 그곳에서 래쿤 존 스미스(Racoon John Smith)의 후손이자 성



1939년 송월동자택, 좌측부터 사모 와네타(Wahneta Smith)와 로이스(Lois), 존 T. 채이스(John T. Chase), 네이딘(Nadine), 케네스(Kenneth), 로버트(Robert)

서대학원생이던 와네타 스미스(Wahneta Smith) 양을 만났다. 스미스는 채이스보다 일 년 먼저 졸업하였다.[1]

와네타 스미스는 테네시 주 출신으로서 밀리건대학을 나온 후 신시내티로 옮겨 성서대학원을 제1회로 졸업하였다. 채이스는 1926년 졸업직후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Baton Rouge)로 내려가 목회를 시작하였고, 곧이어 7월에 스미스와 결혼하였다.[2]

채이스 부부는 신시내티성서대학원 졸업생들로서는 최초로 부부 선교사가 되었다. 1927년에 동경으로 건너가 1934년 10월까지 W. D. 커닝햄(Cunningham)의 요츠야선교회에서 월급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참고로 요츠야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역자들은 선교회에 고용된 직원들이었다.

커닝햄 선교사는 1923년을 시작으로 동경과 횡빈(요코하마)에 조선기독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성낙소 목사가 커닝햄의 초청으로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가 채이스의 감독아래 1931년 1월부터 9월까지 횡빈조선기독교회를 맡아 사역한 바가 있어서, 채이스는 일찍부터 한국인과의 접촉이 많았다. 이뿐 아니라, 채이스는 요츠야선교회가 1924년에 시작한 한국선교에 대해서 모두 꿰고 있었다. 또 채이스는 1931년 9월 하순에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시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 바가 있었다.[3] 이 무렵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을 "추수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황금들판"(the ripest mission field on earth today)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채이스는 한국방문 후 일본에 돌아와 한국은 반드시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전파할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라고 피력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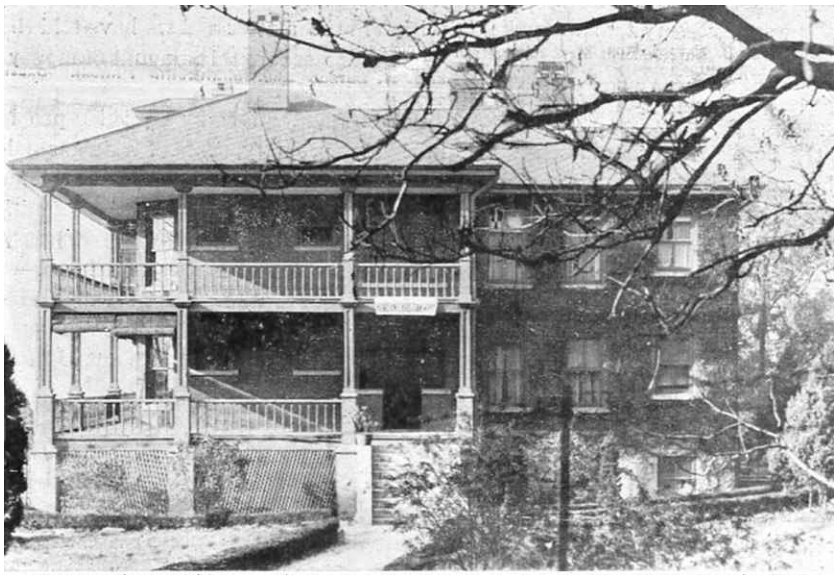
1) John T. Chase,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March 1933, pp. 1-3,.

2) "Your Missionaries," *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August 1937, p. 4.

3) "Tokyo Notes," *Tokyo Christian*, November 1931, p. 1; "Korean Work," *Tokyo Christian*, February 1932, p. 2.

또 채이스는 재일본 조선기독교회들에서 자주 설교하였다. 이런 연유로 채이스는 일본 선교 7년만인 1934년 10월에 커닝햄과 결별하고 11월 2일 미국에 돌아가[4] 한국 선교를 준비하였으며, 독립선교사로서 1936년 11월 7일 서울로 돌아왔다.[5]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채이스는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의 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에서 목회를 하였으나 1936년 3월에 사임하고 기금모금에 돌입하였으며, 그해 10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가족이 한국행 배에 승선하였다. 그의 꿈은 인구 2천만이 사는 은둔의 왕국에 신약성서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에 채이스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캐네스(Kenneth)는 10살, 로버트(Robert)는 7살로써 둘 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네이딘(Nadine)은 4살로써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로이스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소유했던 이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던 채이스 선교사는 1939년부터 매입을 추진하였다.

4) "Depleted Staff," *Tokyo Christian*, December 1934, p. 3.

5) "The Year 1936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February 1937, pp. 4-5.

(Lois)가 한국에서 태어났다.[6]

2) 존 채이스의 한국 입국 후 선교활동(1937-45)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가족이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난 지[7] 만 1년만이었다. 그리고 채이스 가족이 게이조 쇼게추조(경성부 송월동) 32번지의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하여 입주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8] 채이스 가족은 한국에 오기 전에 동경에서 7년 8개월간 사역하였기 때문에[9]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어를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장점으로 채이스는 193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에 돌입하여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 격월간지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및 '한국인성서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설립하였고, 1940년 5월말까지 3년 5개월간 5개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 같은 사역은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쉘리를 존 T. 채이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시작되었다. 채이스는 쉘리가 1935년 4월 25일에 등록한 "기독교회"란 교파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포교관리자를 "J. 마이클 쉘리"에서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의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경기도 경성부 송현정 32번지"로 변경하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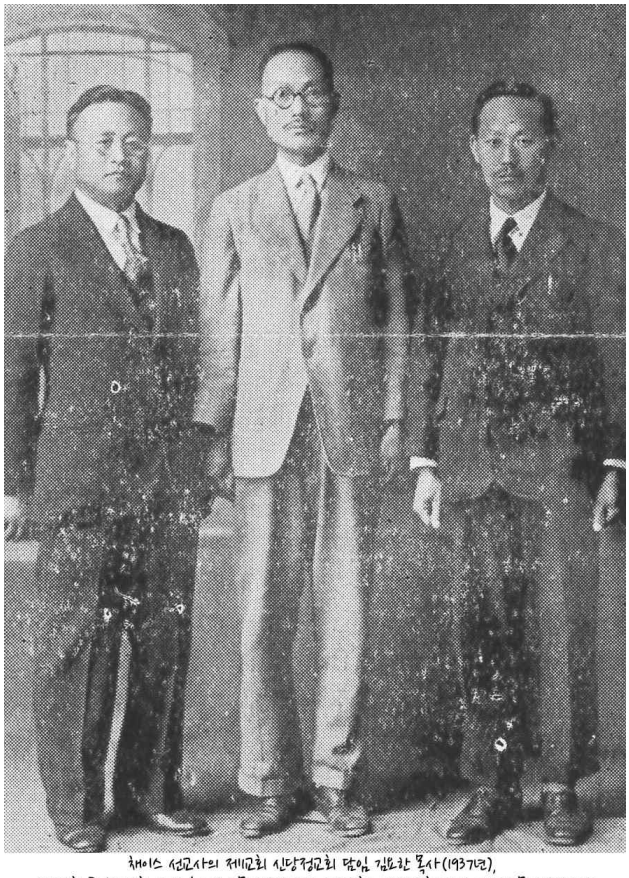
6) "Your Missionaries," *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August 1937, p. 4.

7)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January 1936, p. 1.

8) "The Year 1936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February 1937, pp. 4-5.

9) "About People," *Tokyo Christian*, April 1927, p. 1.

다.[10] 채이스는 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한 지 6개월 반쯤 지난 9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자기 자신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11]



채이스 선교사의 제1교회 신당정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1937년),
제2교회 돈암정교회 담임 최상현 목사(1937년),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1939년)

채이스 부부는 한국어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그를 한국인 성서훈련원 제1호 학생과 제1호 개척교회(기독교회 신당정교회, 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사역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김요한 목사로서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마친 감리교 목사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한

10)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087호 9면, 소화 12년 5월 4일); 국가기록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2526호 7면, 소화 10년 6월 15일); 국가기록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5년, 관리번호: CJA0004821).

1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3221호 4면, 소화 12년 10월 9일).

국인성서훈련원 제2호 학생과 제2호 개척교회(기독교회 돈암정교회,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사역자로 만든 인물은 최상현이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제1회), 중국 북경 연경대학교(수학)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신학교에서 강사와 감리교 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냈던 감리교 목사였다. 최상현은 성서공회에서 총무업무를[12] 보던 중 자신이 주석한 계시록 12장에 관한 소책자를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왔다가 포섭되었다.[13] 채이스의 제3교회는 1939년 초에 편입된 성낙소 목사의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1번지)였다. 구세군사관 출신이었던 성낙소는 채이스의 감독을 받으며 횡빈(요코하마)조선인기독교회를 섬긴바가 있어서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도 역시 1937년 4월 무렵에 한국인성서훈련원에 학생으로 등록하였다.[14] 채이스의 제4교회는 박판조 목사(당시 전도사)가 1939년에 개척만 하고, 담임은 김문화 목사가 맡았던 기독교회 경성돈암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였다. 김문화는 장로교 출신으로써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 성낙소에게 포섭되어 1932년에 이미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기독교회 아현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1936년 9월 4일 성낙소와 함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에 의해서 포교폐지를 당할 때까지 요츠야선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였다. 채이스는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10월과 11월호에서 김문화(M. W. Kim)의 한국에서의 목회사역을 소개한바가 있기 때문에 김문화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채이스의 제5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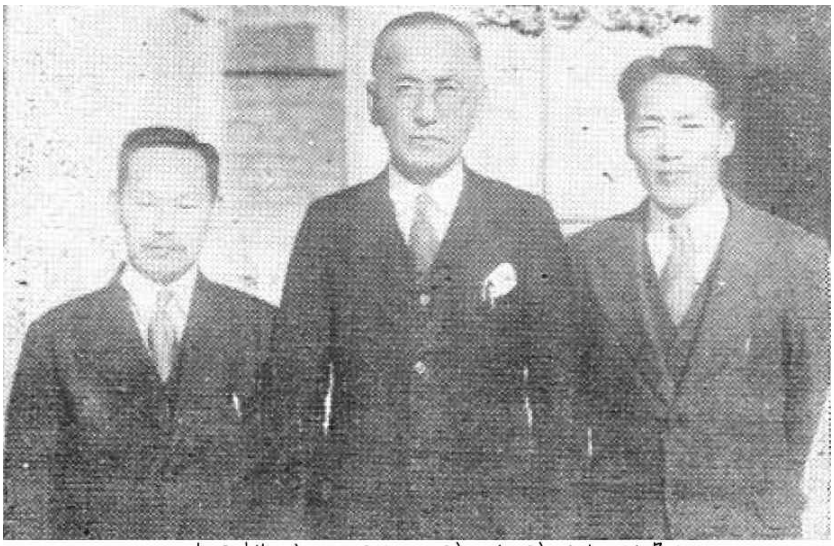
---

12)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수정증보판)>(서울문화인쇄, 2003), pp. 30-31.

13) John T. Chase, "Notes From the Hermit Kingdom," *Christian Standard*, 19 June 1937, p. 553.

14) "May I Introduce to You," *The Korean Messenger*, March 1949, p. 2; John T. Chase, "A New Church Started at Seoul," *Christian Standard*, 17 June 1939, p. 594; "After Two Years," *Christian Standard*, 18 March 1939, p. 262.

는 박판조가 1939년에 개척한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였다. 박판조는 채이스가 총애한 젊고 유능한 전도자였다.



1940년초, 좌측부터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
제4교회 산돌암정교회(박판조 목사가 개척) 담임 김문화 목사, 제5교회 청량리교회 담임 박판조 목사

채이스는 1939년 초에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송월동의 선교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그해 말에 약정 금액의 절반인 5천 달러를 갚고, 나머지 잔금은 1년 뒤인 1940년 말에 모두 처리하였다.[15] 채이스 가족은 잔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1940년 6월 1일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16] 이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힐 요한 선교사 가족이 1939년 6월 21일 서울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고, 선교부의 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17] 그러나

15) "Almost Finished," *Christian Standard*, 16 November 1940, p. 1160.

16) "Some Accomplishments," *The Korean Messenger*, December 1940, p. 1.

17) John J. Hill, "A News Letter," *The Korean Messenger,* August 1939. See also John J. Hill, "New Missionaries, Mr. and Mrs. John J. Hill, Arrive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 September 1939, p. 858.

그해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다. 이에 힐 가족은 1940년 11월 16일 마리포사(Mariposa) 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철수하였다.[18]

전쟁이 임박한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는 선교사들의 한국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가족들의 입국은 불허하였다. 채이스로서는 애써 마련한 선교부 건물과 두고 온 가재도구들 그리고 5명의 목회자들의 생계와 그들의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 미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이스는 1941년 2월 24일 가족을 미국에 남겨둔 채 혼자서 서울로 돌아왔다.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와 선교부의 재산을 보호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채이스가 돌아왔을 때 교회는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채이스는 이들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채이스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형사들이 붙어 다녔고, 목회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일제가 스파이로 의심하는 선교사와 나눈 교제 때문에 매를 맞고 선교사와 만나 나눈 모든 내용을 써서 제출해야 했다. 채이스는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체류기간을 겨우 한 달만 채우고 3월 마지막 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른 채 목회자들과 헤어져야 했다.

그러나 채이스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선교부 건물을 그 곳에 난로공장을 세운 전항섭에게 임대 놓았고,[19] 임대료를 받아 목회자들의 활동비에 보태도록 하였으며, 두 선교사가 사용하던

---

18)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p. 522;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 229.

19)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쎄메론 제7호>(한국성서신학교, 1972);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p. 32.

가구와 은제식기류, 침대보, 재봉틀 등을 모두 팔아서 1941년 말까지 목회자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마련하였다.[20] 채이스가 전쟁 전에 이들 목회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것은 1941년 10월이었다. 이후 1946년 5월호 <한국인 전령>이 발간되기까지 근 4년 반 동안 한국과의 연락은 두절되었다.

채이스 선교사 가족이 1940년 6월 1일 모금을 위한 안식년으로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3년 7개월간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들 다섯 명의 사역자들과 다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었다. 이들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 가입과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과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박해와 폐쇄조치[21]에도 불구하고, 돈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을 이문목도(耳聞目睹)한 채이스는 자신이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이들에게 신약성서기독교를 철저히

---

20) John T. Chase, "The Situation in Korea," *The Korean Messenger*, May 1941, pp. 1-3.

21)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계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의 포교가 금지당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직전인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282번지)의 포교관리자폐지계가 계출되었다[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87호 3면, 소화 20년 1월 23일)]. 그리고 나흘 뒤인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존 T. 채이스(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 김문화(경기도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 송암 승웅(松巖勝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의 포교폐지계가[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52호 5면, 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하왕십리정 893번지), 돈암정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산55번지),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포교소폐지계가 계출되었다[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 소화 19년 10월 10일)].

교육한 결실이라고 확신하였다.[22] 이후의 선교는 살아남은 이 두 개의 교회를 기반으로 확장되어나갔다.

3) 존 채이스 선교사가 남긴 업적

채이스는 선교사로서 포교관리자변경계 계출, <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발행,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 설립, 송월동 선교부 건물 매입, '한국인성서훈련원' 개교, 5개 교회 설립, 선교사들 모집,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건축하기 위해서 5만 62달러 90센트를 모금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1) 선교부 건물의 매입, 몰수, 환원까지(1939-51)

선교부 건물은 서울시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지에 위치한 대지 225평 위에 세워진 2층 반 건물이었다. 화장실 2개와 방들이 있는 지하실(건물 바닥의 3분의 2크기)과 난방설비가 갖춰진 건물이었다. 1939년 초에 건물의 소유주였던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선교차원에서 싼값에 매도할 의향을 비치자 채이스는 이를 크게 반기며 매입을 추진하였고, 액면가격 1만7천 달러짜리 이 건물을 1만 달러에 넘겨받데, 매입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939년 말까지 갚기로 하였다. 채이스는 1939년 말에 약정 금액의 절반을 갚고, 나머지 잔금은 1년 뒤인 1940년 말에 모두 처리하였다. 채이스는 영국해외성서공회에 갚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1940년 6월 1일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 1940년 11월 16일자에 따르면, 잔금 5,000달러 가운데 부족 금액이 150달러뿐이었다.[23]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은 이 재산을

---

22) "Christian Heroism" and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1, 3; "Here Is the Proof," *The Korean Messenger*, May 1947, p. 1.

몰수하여 1943년에 이곳에 난로공장을 차렸던 전항섭에게 팔아넘겼다.[24]

해방 후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고, 그 청구가 법무부 청구국(Claims Bureau of the Department of Justice)에 접수되었다.[25] 또 채이스는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때와 1948년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미군정과 대사관에 수차례 호소하였다. 채이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교부 재산이 환수된 것은 몰수당한지 10여년 만인 1952년경이었다.[26]

(2) 한국인 성서 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채이스는 선교부 지하실에 한국인성서훈련원을 개설하고 14명의 학생으로 일주일에 4일씩 신약성서기독교를 강의하였다. 최초의 학생은 김요한 목사였고, 곧 이어서 최상현 목사, 김문화 목사, 성낙소 목사, 백낙중, 박판조가 합류하여 이곳에서 공부하였다.[27] 백낙중을 뺀 나머지 다섯 명은 1940년 3월 25일에 졸업하였다.

최초의 교재는 P. H. 웰시머(Welshimer)가 저술한 20쪽 짜

---

23) "Almost Finished," *Christian Standard*, 16 November 1940, p. 1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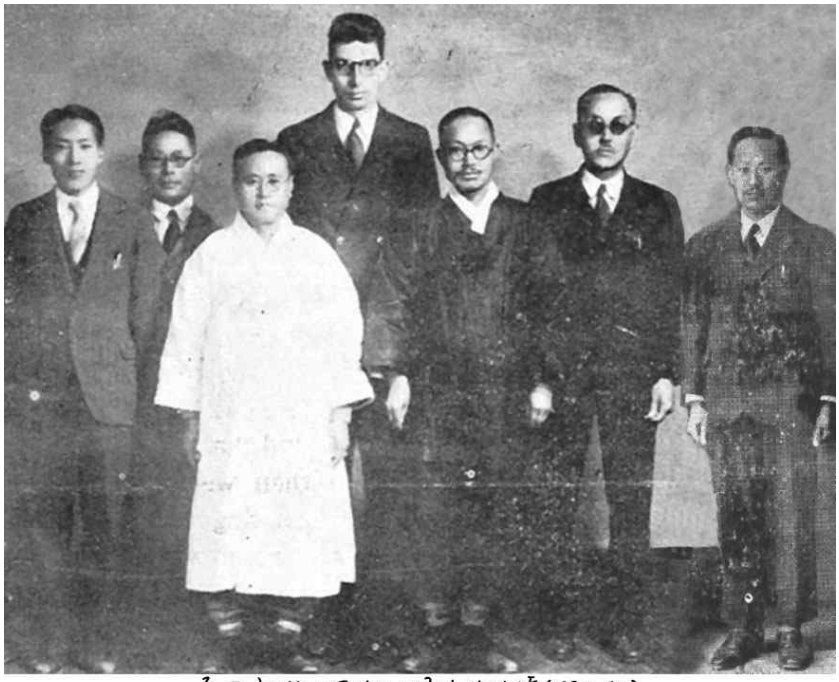
24) "Korean Christian Mission (in Retrospect)" and "Gospel Headquarters in Seoul," *The Korean Messenger*, May 1946, pp. 3-4;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힐 요한 선교사> 조동호 지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p. 74.

25) "Concerning the Property in Korea,"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46, p. 5.

26)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p. 33; <힐 요한 선교사> p. 75.

27) "Investment Returns," *The Korean Messenger*, April 1937, p. 3.

리 전도책자 <신약성서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이었다. 김요한 목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후 훈련원에는 미국에서 보내온 영문서적들이 쌓여갔다.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1937-40)
좌측부터 박판조 목사(청량리교회), 백낙중 목사(공덕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돈암정교회), 김윤화 목사(산돈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채이스는 이들 목회자들에게 수년씩 재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신약성서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자부하였다. 그 열매가 바로 그들이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들이 폐쇄를 당한 후에도 2-3개의 교회들이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만찬을 빠뜨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유지한 이유라고 믿었다. 이것은 채이스 자신이 7년간이나 고용 선교사가 되어 일하다가 결별했던 W. D. 커닝햄이 교파배경을 가진 사역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신학교를 세우지도 아니

하고, 자기 일군을 키우지 아니한 결과와 비교가 되었다.

(3) 격월간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채이스 선교사는 선교지인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을 1937년 2월부터 격월간으로 서울에서 발간하였다. 그리고 1940년 6월에 미국에 들어가서 태평양 전쟁과 6.25동란으로 한국에 나오지 못한 근 10년간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발간하였으나 격월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1936년에 설립한 기독교회선교부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4)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

채이스는 1937년에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지에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다. 1930년대 초 불어 닥친 대공황의 격랑기에 급여문제로 커닝햄과 갈라섰던 채이스는 기독교회선교부의 정체성을 독립(independent)과 협력(co-operative)의 원칙에 두었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상호의존성(dependent upon God and His people)에 두었다.[28] 채이스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한국'(Korea for Christ)에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세우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역을 펼쳐나갔다.

채이스는 선교사를 모집하는 일에도 힘썼는데, 그가 존슨성서대학을 방문하여 졸업을 수개월 앞둔 우등생 힐 요한을 한국의

28)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Is,"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39, p. 3.

선교사로 모집한 것은 그가 남긴 업적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 그는 또 클라이드와 테사 아담스(Clyde and Tessa Adams) 부부를 선교사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들어 올 준비를 하면서 미국정부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중에 클라이드가 1946년 5월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아담스 가족은 선교사가 되려던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끝내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는 힐 요한 가족으로서 1949년 2월 18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아담스가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모금한 금액은 3천 1백 2달러 97센트로써 전액 기독교회선교부 재건을 위해서 쓰였다.[29]

4) 요츠야 선교부 사역자들과의 관계

채이스는 요츠야선교회가 1924년 이후 펼친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채이스가 한국에 도착했을 무렵에 요츠야선교회가 세운 교회가 인천(제물포)에 3개,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5개, 마산에 1개, 총 12개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스는 1936년 10월까지 "한국에는 선교사 가족도 없고, 설교 사역자 양성소도 없고, 내국인의 교회도 없고, 내국인 전도자도 없고, 선교소식지도 없었다."고 적었다. 또 지금은 선교사 한 가족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고, 한국인성서훈련원이 제2학기 과정을 진행 중이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와 두 명의 전도자들과 다수가 훈련을 받고 있고, <한국인 전령>이 2,250부씩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30] 이 보도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사역에 대해서 열광하던 현실에서 채이스 선교사가 섣불리 미국에 왜곡보도를

---

29) John T. Chase, "Concerning Adams' Korean Fund," *Christian Standard*, 13 July, 1946, p. 472.

30) "A Suggestion," *The Korean Messenger*, October 1937, p. 1: "No Missionary Family in Korea; No Preacher Training School; No Native Congregation; No Native Evangelist; No Missionary Paper."

한 것이 아니고, 이인범이 포교책임자로 있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회)의 기독교회들을 신약성서기독교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채이스는 이원균과 이인범하고는 교제하지 않았다. 이원균은 1937년부터 삼하도 조선기독교회를 맡아 동경에 머물렀기 때문이고, 이인범은 부정직한 인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인범도 커닝햄을 궁지로 몬 채이스를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48년 말에 채이스는 요츠야선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던 용산교회의 이난기 목사와 아현동교회의 윤낙영 목사가 기독교회선교부에 소속된 것을 기뻐하였고 그들을 기꺼이 도왔다.

채이스와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한국에 '기독의 교회'(교역자회)를 세운 동석기 전도자를 만난 적이 있었고, 강명석 전도자에게는 기독교회 신당정교회 제1주년 기념예배 설교를 맡겼으며, 요츠야선교회의 토마스 힛치(Thomas G. Hitch)와 오웬 스틸Owen Still)과도 교제하였다. 그밖에도 독립선교사로서 동경에서 사역하는 빤함(Farnham)과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 오사카성서대학에서 사역하는 해롤드 콜(Harold Cole) 등과도 교제를 나눴다.

5) 은퇴 후 생활

채이스는 목회에도 성공적이어서 1951년부터 1968년까지 17년간 시무한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 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채이스는 은퇴 후 필리핀 체부(Cebu)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전미선교대회(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의 창립멤버와 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교회연금제도(Church Development Fund)의 창립이사였고, 산호세성서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의 이사였으며,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NACC)의 유지회원이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NACC로부터 '올해의 목회자'상과 1984년 신

시내티기독대학교에서 '저명한 동문'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우니(Downey)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의 시의원직에도 당선되었다.

존 T. 채이스 부부의 추모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신약성서기독교의 참 선교사였던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로디(Lodi)에서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 하였고,[31] 부인 와네타 아이린 스미스 채이스(Wahneta Irene Smith Chase) 여사의 출생지인 테네시 주 설리번 카운티 파이니 플래츠(Piney Flats Sullivan County)의 포플러 릿지 묘지공원(Poplar Ridge Cemetery)에 안장되었다. 와네타는 1901년 10월 28일에 출생하여 2002년 7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레몬 그로브(Lemon Grove San Diego County)에서 100세로 소천하여 남편 채이스와 합장되었다.[32]

---

31) 존 T. 채이스 목사의 활동내용은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에 풍성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pp. 119-124.

32) Poplar Ridge Cemetery in Piney Flats Sullivan County Tennessee, USA; "Wahneta Irene Smith-Chase," *Lodi News-Sentinel,* 23 July 2002, p. 8.